



전쟁터에 핀 사랑 '태양의 후예'

KBS 2TV 내일 첫 방송 ... 3년만에 복귀한 송혜교, 송중기와 호흡

주로 '신데렐라' 스토리를 그려온 김은숙 작가가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다. 재난 현장에서 만난 특전사 대위와 의사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부터 그렇다.

김은숙 작가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발표회에서 "태양의 후예"는 자기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누구나 그레야 하는걸 알지만 누구나 그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난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제가 쓴 것 중 최고의 '판타지'"라고 말했다.

특전사 대위 유시진(송중기 분)과 의사 강모연(송혜교)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 미묘한 감정을 느끼지만 시진이 가상의 국가 '우르크'로 파병되면서 헤어진다. 이후 모연이 병원 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우르크'에 가게 되고 두 사람은 위험하고 낯선 이곳에서 마음을 키우게 된다.

김은숙 작가는 "이전에 '자기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벗어나려고 나를 노력도 했다"며 "(주로 재난 장면을 쓴) 김은숙 작가의 조금은 무거운 틀에 제 색깔을 담아봤더니 굉장히 재미있어졌다"고 덧붙였다.

특전사 대위 유시진 역을 맡은 배우 송중기는 지난해 전역 이후 바로 군인 역으로 이 드라마에 합류했다. 송중기는 "전역하자마자 군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선 크게 개입이 없었다"며 "말투 같은 것

들이 몸에 배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캐릭터가 생각보다 진중한 면이 많아서 쉽지않은 일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병장 진급 2개월을 앞두고 대본을 받아봤다는 그는 "업계에서 이미 유명한 대본이었는데 읽는 순간이 대본은 안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많은 분께 관심을 받는 작품이기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혜교와 호흡을 맞추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송혜교 씨와의 멜로를 생각하면 제가 완벽하게 유지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평소와 달리 몸도 키웠다"며 "다행히 (촬영 준비를 시작한) 군대가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어서 준비를 잘할 수 있었다"고 웃었다.

군 생활, 그리고 군인 역할을 위한 해외 촬영을 감안하면 그는 특유의 뽀얀 피부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송중기는 "아마 우리나라 남자들 중 피부 관리에 가장 신경쓰는 사람들이 군인일 것"이라며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송중기는 "전쟁 중인 데다 지진도 나고 의사도 나오고 다양한 설정들 때문에 장르가 무엇이나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멜로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며 "시진과 모연의 사랑을 위해 헬기도 뜨고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는 것 같다"고 재미있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주인공 강모연 역을 맡은 송혜교는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송혜교는 "대본을 받아보니 김은숙·김원석 작가의 색깔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재미있었다"며 "2004년 '풀하우스' 이후 로맨틱 코미디는 10여년 만인데 시간이 흘렀으니 예전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웃었다.

송혜교는 "사건제작 환경에서는 배우가 캐릭터와 그의 감정을 더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드라마에서 송혜교는 흥부와 과 전문의 역을 맡았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학 관련 장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법하다.

"하면 할 수록 어려운 게 연기라는 생각이 들던 차였는데 의사 역할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의학 용어를 대사로 소화해야 할 때는 제 뜻대로 말이 안나 가니가 NG도 많이 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이 늘 대기고 어떻게 해야할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송혜교)

송혜교는 "저희 드라마는 코미디도 있고 멜로도 있고 휴먼까지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라는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태양의 후예'의 관전 포인트를 자랑했다.

이승복·백상훈 KBS PD가 공동연출을 맡았다. 총 제작비 130억원을 들인 대작으로 지난해 6월 촬영을 시작해 100% 사전 제작됐다.

24일 밤 10시 KBS와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爱奇艺)에서 동시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국내서도 음원으로 비틀즈 듣는다

29일부터 멜론 등 음원사이트서 307곡 스트리밍·내려받기 제공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음악을 오는 29일부터 한국의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음원유통사 유니버설뮤직 코리아는 "29일부터 국내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 업체 10곳을 통해 비틀즈 음원의 스트리밍과 내려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63년 발매된 비틀즈 데뷔 앨범 '플리즈 플리즈 미'(Please Please Me)부터 밴드 해체 이후 발매된 앨범 '렛 잇 비'(Let It Be)까지 정규앨범 13장과 히트곡 모음 앨범 '1', 컴필레이션(편집) 앨범 등 총 17장의 비틀즈 앨범 307곡의 스트리밍·내려받기가 가능해진다.

비틀즈의 음악은 오랫동안 LP·테이프·CD 등 물리적 매체로만 배포됐고, 2010년 이후에야 애플 아이튠스에서 디지털 내려받기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24일에는 비틀즈 음원을 보유한 애플 레코즈와 음원 배급사 EMI의 비(비)클래식 부문을 인수한 유니버설뮤직의 결정에 따라 해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스포티파이 등에 음원이 풀렸다. 이때도 한국은 저작권료 배분 등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계약이 마무리돼 한국에 거주하

는 팬들도 비틀즈 음악을 편리한 디지털 기기로 들을 수 있게 됐다.

음원은 멜론, 네이버뮤직, 지니, 벅스, 엠넷, 소리바다, 밀크뮤직, 카카오투, 비트, 그루브스 등 10개 업체에서 제공된다.

음원사이트들은 앞다투어 관련 이벤트를 선보였다.

멜론은 음악 관련 칼럼 연재 코너인 '멜론 뮤직스토리'에 비틀즈에 정통한 애호가인 비틀즈 명곡과 역사적 행보를 재조명하는 글을 이날부터 매주 한 차례, 총 8회에 걸쳐 연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비틀즈 앨범 표지 공개와 함께 음악감상회 초대도 시작된다. 멜론은 다음 달 초 비틀즈의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회를 열 예정이며, 23일부터 음모자 가운데 80명(1인2매)을 추첨해 초대권을 줄 계획이다.

NHN엔터테인먼트의 벅스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틀즈에 '좋아요'를 누른 모든 이용자에게 앨범 발매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비틀즈 LP와 CD를 선물할 예정이다.

KT뮤직이 운영하는 지니도 홈페이지에 비틀즈 앨범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따로 마련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3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00 킨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방송경제 50 KBC 생방송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닥터 365(재) 05 인류해석 우리를 만든 비밀(재)
12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전국 TOP10 가요쇼(재)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빛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위기탈출 남북연(재)	20 문화사색(재)	
2	30 직언직설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크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명경관리(재) 55 튜브생활제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기(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고고 다이노
5	3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시사선단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00 한번 더 해피엔딩(재)	00 KBS 뉴스7 30 이웃집 찰스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10 개밥 주는 남자(재)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무림학교)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총격 실화극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 걸작 다크	10 우리동네 예능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아내가 났다 남편발상(재)	35 독립영화관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BS 1			
05:00 EBS 생방송 05:30 건강안아침 05:40 성공 인생후반전 <35년 금융인, 소리꾼이 되다 국악인 손영준>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마을중요조미료 들개소스구마무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크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e 13:10 프레임 인 13:40 즐겨찾 수확 EBS MATH 13:50 오스카의 아이스쇼 14:00 허풍선이 과학 쇼 14:30 투바투바 눈보리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 다코(재)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보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당동당 유치원1~3(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국한직업 <국 채취>	20:40 다크 오늘 <별순남 너구리> 20:50 세계테마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21:30 한국기행 <겨울 지리산에 가면> 21:50 EBS 다크프라임 <결혼의 진화> 22:45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23:35 세계검문록 아틀라스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3일(음 1월 16일 乙亥)

子	48년생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임의적 상황에 놓여 있느니라. 60년생 속고의 시간이 길수록 실속이 있다는 것을 알라. 72년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라. 84년생 재복이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59	午	42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54년생 현재의 손익에만 얽매어만 곤란해진다. 66년생 거창한 명분에 비해서 실제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78년생 소탐대실할 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 하라. 행운의 숫자 : 80, 39
丑	49년생 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61년생 예리하게 관찰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73년생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 겸손하자. 85년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가닥이 잡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13	未	43년생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니 흥결이 생길 수밖에 없느니라. 55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리라. 67년생 피격적인 변하는 추구가 생산성을 도모하라. 79년생 여러 번의 기회들이 지나갈 것이니 잘 살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0, 64
寅	50년생 막연하다면 무모함을 면치 못하라. 62년생 부담스러울 일이 기다리고 있도다. 74년생 평상시에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86년생 굶어서 부스럼 내지 말고 잠자코 있자. 행운의 숫자 : 51, 82	申	44년생 고뇌에 찬 하루가 될 것이다. 56년생 평생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발생하라. 68년생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대서 역효과를 보게 된다. 80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라. 행운의 숫자 : 65, 07
卯	51년생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재를 불러들이는 격이 된다. 63년생 상부상조해야 만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75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87년생 안분지족할 줄 알라. 행운의 숫자 : 83, 71	酉	45년생 조건을 완화한다면 효과가 더 크다. 57년생 하나 마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느니라. 69년생 발바닥치면서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 나타나 있다. 81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0, 66
辰	40년생 일시적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다. 52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중해라. 6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낭패를 보리라. 76년생 하자가 있으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88년생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77, 21	戌	46년생 큰 노력 없이도 수월하게 이익을 얻겠다. 58년생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70년생 별로 상관될 일이 아니니 쾌념치 말고 처리하라. 82년생 사람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5, 91
巳	41년생 스스로 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주관을 잃지 말라. 65년생 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리라. 77년생 회복세를 돌아서리라. 89년생 넓은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2, 27	亥	47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겠다. 59년생 윤곽이 잡히고 체계가 서게 되리라. 71년생 협력자를 자처하는 이를 주목해 볼 일이다. 83년생 자신이 해결할 역량이 충분하니 굳이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3, 8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